

30대 출산의지 잠재프로파일 분석: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차이*

양난미**·권동주***

초 록

본 연구는 30대 성인의 출산의지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을 유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별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3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Asparouhov와 Muthen(2014)의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의지 하위요인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의지에 따른 잠재집단은 무관심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적극적 출산고려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잠재집단별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수혜 및 제공)은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가족건강성은 적극적 출산고려형에서 가장 높고, 소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잠재집단 간 성별, 교육 수준, 경제력, 가족 형태, 거주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출산의지의 다각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저출산, 출산의지,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 이 연구는 2024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behelper@gnu.ac.kr).

*** 경상국립대학교 석사 과정(ehdzo@naver.com).

I. 서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통계청(2025)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0.721에서 2024년 0.750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때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만 15세부터 49세, 즉 일생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통계청, 2024), 한국 사회는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0.977로 처음 1.0 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까지도 1.0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다. 비록 2024년 출생아의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며 출산율의 반등을 나타냈으나 이는 출생아 수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의 일시적 정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소 반등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OECD 국가의 출산율과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OECD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1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0.78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2024).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합계출산율이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다고 하여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우며, 아직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연결되고 인구감소는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노동력 감소, 재정 부담, 인구고령화를 넘어서 지역소멸이나 국가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이 되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도 이어지게 된다(김경수 외, 2021). 또한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영향을 미친다. 세입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약 2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지만, 세출의 측면에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응하게 증가하는 복지 세출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김정훈, 2017) 한국의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의 재정에 있어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할 것으로 고려된다. 한국에서 인구의 감소는 지역 간 인구수의 불균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며 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로 인한 교

통의 혼잡, 주거난,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안정적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료나 교육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김광용, 2022).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고령화율은 13.2%였으나 농산어촌의 고령화율은 37.8%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이 더 고령화에 빠르게 접어들어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세로 한국의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2045년 4천만 명, 2091년 3천만 명이 될 수 있으며(김순은, 2017) 저출산의 문제가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4차에 걸쳐 보육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 개선, 결혼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대책, 국공립 등의 공보육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도남희, 2019).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가 발전이나 제도적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법률을 제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박민근·김윤희, 2024; 임병인·서혜림, 2021). 이는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인구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30대의 출산의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실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통계청(2025)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5년 30.23세로 처음 30세를 상회한 이래, 2015년 32.23세, 2024년 33.69세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만혼화와 고령 출산의 경향은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며, 2015년 31.20세에서 2024년 33.08세로 상향 조정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이는 30대가 생애주기상 가장 활발하게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주력 연령층임을 시사한다. 즉, 30대는 출산 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들의 출산의지 변화는 국가 전체의 출산율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0대의 출산의지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30대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출산의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출산의지는 개인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사 및 동기 수준으로 정의된다(김소이, 2019; 이보라·이정자, 2019).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의지는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동기적 기제이므로, 출산의지는 실질적인 출산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선행변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의지는 실제 출산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진·정혜정·정유진, 2022; 박영애, 2013),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출산의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출산의지는 자녀 출산계획 있음 혹은 없음(이은지·진장익, 2024),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겠다 동의 정도 7점 척도(김양희 외, 2025)와 같은 단일 문항이나 3-4문항 정도의 소수 문항(허청라, 2025)으로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의지의 기저에 존재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출산의향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주관적 가치 평가인 자녀가치를 통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출산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녀가치의 하위요인에 따라 후속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선행연구(심도담, 2017)는 출산의지를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변인 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은 개별변인 간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나,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한 응답 패턴이나 이질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간 유사성에 기초하여 하위집단을 유형화하는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이 유용할 수 있다(Chen, Zhang & Wang, 2019).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출산을 하는 30대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도구·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 및 출산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하위요인 간의 복잡한 결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다차원적인 응답패턴을 바탕으로 최적의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다변량 통계 기법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 간의 특성을 구체화하고자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등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저출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30대의 출산의지와 자녀가치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은 어떻게 분류되고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분류된 잠재집단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출산의지

개인의 출산 의사와 동기 수준을 의미하는 출산의지(김소이, 2019; 이보라·이정자, 2019)는 실제 출산행동을 결정하는 선행요인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출산의향과 함께 자녀가치를 함께 고려하였다. 심도담(2017)은 자녀가치를 정서적 가치, 도구적·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먼저 정서적 가치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도구적·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통한 사회적 인정, 지위의 획득이나 원만한 인간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물질적, 사회적 이익을 의미하며, 부담적 가치는 육아에 따른 육체적 피로,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이 포함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심도담(2017)은 이러한 자녀가치가 후속 출산의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도구적·사회적 가치가 후속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가치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후속 출산의지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며 부담적 가치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후속 출산의지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의지를 단순히 출산의지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출산의지의 다양한 측면을 조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출산의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출산의지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개인적, 가족적,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변인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거나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먼저 개인적, 경제적 차원의 영향력은 성별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출산시기를 연기하는 등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에서는 이런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오은진·김소연, 2021; 이휘정·김경민, 2022). 소득 수준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이현옥, 2011)와 함께, 소득 하위 및 상위 25% 집단이 중위 소득층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등 소득과 출산의지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임을 시사하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은정, 2013). 이는 단일 변인의 평균적인 영향력을 살피는 기존의 변인 중심 접근법만으로는 30대 내부의 이질적인 출산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적 배경 및 지역적 맥락과 출산의지 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성장기 대가족 내에서의 강한 유대감이 출산에 긍정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가설과, 많은 형제자매로 인한 자원 분산의 부정적 경험이 출산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Hashemzadeh et al., 2021)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아져 거주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성(박관태·전희정, 2020)에 비추어 볼 때, 지역적 맥락이 개인의 출산의지 형성에 유의미한 환경적 변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성별, 교육 수준, 경제력(개인적 차원), 성장기 가족 형태(가족적 차원), 거주 지역(지역적 맥락)에 따른 잠재집단별 분포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각 잠재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3. 출산의지와 자존감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신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이은경, 2005).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개인의 적응 유연성을 높여 생애 주기의 주요 과업인 출산 및 양육 결정 과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자존감과 출산의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후속 출산 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임효진 외, 2015). 특히 우울이나 불안 등 외부 환경적 요

인에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의 내면적 자원인 자존감을 증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의지 향상으로 이어졌다(조해연·유준호, 2025). 이는 자존감이 단순한 심리 상태를 넘어, 출산이라는 중대한 생애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력임을 시사한다.

출산의지와 의 구체적인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존감의 역할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라송주(2007)는 성별과 관계없이 출산의지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존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향 또한 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30대 여성의 후속 출산 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변인으로 자존감이 식별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자산 강화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엄연용,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 이행의 주력 계층인 30대의 심리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산의지 프로파일에 따른 하위집단 간 자존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4.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절히 유지되고, 가족 내 역동과 관계가 기능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체계로서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유영주 외, 2013). Stinnett(1981)은 건강한 가족의 핵심 자질로 상호 감사와 애정, 공동의 시간 공유, 효율적인 의사소통, 헌신, 영적 안녕, 그리고 위기 시의 긍정적 대처 능력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적 자산은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유영주, 2004).

가족건강성과 출산의지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원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손경희·김남희·이은숙, 2019; 이인숙, 2022). 이는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가족 기능이 미래의 새로운 가족 형성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성원 간의 상호 지지체계가 견고하여,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담을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출산의지 및 자녀가치 패턴에 따라 구분된 하위

집단 간에 가족건강성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성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5. 출산의지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돌봄과 사랑, 존중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상호적 의무 체계의 구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 및 자원을 의미한다(Cobb, 1976).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는 핵심 자산으로서, 본질적으로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이상준·이영순, 2025). 특히 가족이나 친구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은 출산 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Hashemzadeh et al., 2021; Kuhnt & Trappe, 2016),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비공식적·직접적 지지가 장기적인 출산 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Fior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공과 수혜의 양방향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주고받기보다 상호적으로 교환하는 개인이 더 높은 심리적 이득을 얻는다는 Maton(1987)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 수혜와 제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혜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제공은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 경험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이상준, 2023; 하정희·장유진, 2011).

사회적 지지의 수혜는 개인의 안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우울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Holt-Lunstad, 2022; Spino et al., 2016). 그러나 필요 이상의 지지를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수혜는 오히려 개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심리적 부채감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김미령, 2005). 반면,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수혜와의 균형을 맞추으로써 과잉 수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상쇄하고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김미령, 2005; Antonucci, Fuhrer & Jackson, 1990).

여성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출산의지를 예측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Araban et al., 2020; Rashidi et al., 2025)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의 수혜와 제공 양상은 출산의지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환경적 변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상호적 특성이 출산의지 하위집단 분류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

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지체계의 질적 특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GIRB-A23-NY-0089)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의 패널로 활동하는 전국의 30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20대, 30대 성인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일부로,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비례하게 추출하였으며, 패널 중 30대 성인을 표본틀로 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에게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시 방법, 비밀보장에 관한 설명, 연구 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설명, 자료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하여 안내한 이후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인 13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 250명(50.0%)이며 30대 초반(30-34) 289명(57.8%), 30대 후반(35-39세) 211명(42.2%)이었다. 지역은 특별시 147명(29.4%), 광역시 141명(28.2%), 도(시) 187명(37.4%), 도(군) 18명(3.6%), 특별자치도 7명(1.4%)이었다. 최종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76명(15.2%), 대학교 졸업 387명(77.4%),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 37명(7.4%)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 381명(76.2%), 대가족 67명(13.4%), 기타 52명(10.0%)이었다. 경제력은 하 53명(10.6%), 중하 134명(26.8%), 중 248명(49.6%), 중상 60명(12.0%), 상 5명(1.0%)였다. 직업은 학생 14명(2.8%), 직장인 411명(82.2%), 기타 75명(15.0%)으로 직장인은 공무원 36명(8.7%),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 27명(6.6%), 외부기업 37명(9.0%), 법인 단체 17명(4.1%), 민간 회사 및 개인사업체 273명(66.3%), 기타 22명(5.3%)였다.

2. 연구도구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지역, 최종 학력, 가족 형태, 경제력에 대해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 '도(군)', '특별자치도' 중 하나로,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 형태는 '만 19세 이전까지 경험한 가족 형태'에 대해 '핵가족', '대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기타' 중 하나로, 경제력은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력'에 대해 '하', '중하', '중', '중상', '상' 중의 하나로 측정하였다.

2)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이세연(2007)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측정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번안 척도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고 이세연(2007)은 .86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3)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유영주 등(2013)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탄력성(7문항,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등), 상호존중과 수용(5문항,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등), 질적 유대감(4문항,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등), 경제적 안정과 협력(3문항,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다.' 등), 가족문화와 사회참여(3문항,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영주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7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hakespeare-Finch와 Obst(2011)가 개발하고 이상준(202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양방향 사회적 지지 척도(2-way Social Support Scale, 2-way 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 하위요인,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지 수혜(11문항, '내 삶의 부담에 관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 등)와 사회적 지지 제공(8문항, '나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번안 척도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6, 사회적 지지 수혜 .95, 사회적 지지 제공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6, 사회적 지지 수혜 .95, 사회적 지지 제공 .91로 나타났다.

5) 출산의지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소이(2019)의 출산의향 척도와 심도담(2017)의 자녀가치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김소이(2019)의 출산의향 척도는 홍성란(2016)이 개발한 척도를 인용한 것으로 총 4문항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 '출산은 생애에서 중요하다.',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출산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자녀를 낳을 것이다.'이다. 김소이(2019)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자녀가치는 이영애(1973), 박성연(1986), 배경민(2007)이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을 심도담(2017)이 재구성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도담(2017)의 척도는 3개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서적 가치 5문항('자녀를 위한 희생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사이에 더욱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 준다.', '자녀를 갖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훌륭하게 부모역할을 해온 사람은 인생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는 결혼에 대한 축복이다.'), 도구적·사회적 가치 10문항('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출산은 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젊은 부부는 아이가 생기기까지 그 사회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그 사회나 이웃에서 존경을

받는다.’, ‘가계계승을 위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한 부분이 영생한다고 느낄 수 있다.’, ‘자녀가 성인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 이상 낳는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이다.’, ‘한 가정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적 가치 5문항(‘자녀가 옆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자기가 즐기던 일들 중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음을 의미하는 부담적 가치의 5문항은 역채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심도담(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82, 정서적 가치 .74, 도구적·사회적 가치 .85, 부담적 가치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89, 정서적 가치 .82, 도구적·사회적 가치 .90, 부담적 가치 .7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정규성 가정을 검정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을 출산의지 하위변인에 따른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수혜, 제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sparouhov와 Muthén(2014)이 제안한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AIC, BIC, Entropy 등의 지수들을 사용하여 잠재집단의 기본 모형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잠재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하여 각 개인이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확인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개인이 잘못된 집단에 오분류될 가능성인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는 1단계 접근법의 단점인 예측변인의 추가·제거 시마다 기존의 측정 모형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와 예측 변인을 포함한 상태에서

잠재집단의 수 결정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모형 구성의 문제 등을(Vermunt, 2010) 해결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잠재모형 변인과 독립 혹은 종속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Asparouhov & Muthé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출산의지 변인에 따라 잠재집단이 산출된 이후 각 집단마다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수혜, 제공), 자존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MANOVA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27.0, Mplus 7.4를 활용하였다.

IV.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수혜와 제공, 출산의지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볼 때, 자존감은 평균 3.21(SD=.71), 가족건강성은 평균 3.52(SD=.76), 사회적 지지 수혜는 평균 3.65(SD=.80), 사회적 지지 제공은 평균 3.62(SD=.65), 정서적 가치는 평균 3.58(SD=.79), 도구적·사회적 가치는 평균 2.79(SD=.85), 부담적 가치는 평균 2.16(SD=.67), 출산의향은 평균 3.29(SD=.98)로 나타났다. 주요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존감은 가족건강성($r=.47, p<.001$), 사회적 지지 수혜($r=.58, p<.001$)와 제공($r=.4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 수혜($r=.72, p<.001$)와 제공($r=.6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정서적 가치는 도구적·사회적 가치($r=.57, p<.001$), 출산의지($r=.7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도구적·사회적 가치는 출산의지($r=.6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측정 변인이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Finch, West와 MacKinnon(1997)은 왜도의 값은 ± 2 , 첨도의 값은 ± 7 을 넘지 않을 때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10~.84, 첨도의 절댓값은 .02~.83으로 나타나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							
2	.47***	-						
3	.58***	.72***	-					
4	.46***	.60***	.72***	-				
5	.17***	.44***	.40***	.40***	-			
6	.04	.34***	.22***	.23***	.57***	-		
7	.12***	.10*	.04	-.04	.09	.23***	-	
8	.18***	.45***	.36***	.35***	.71***	.65***	.23***	-
평균	3.21	3.52	3.65	3.62	3.58	2.79	2.16	3.29
표준편차	.71	.76	.80	.65	.79	.85	.67	.98
왜도	-.24	-.46	-.84	-.40	-.50	.10	.39	-.45
첨도	.62	.24	.83	.54	.26	-.43	-.02	-.12

주: 1. 1. 자존감 2. 가족건강성, 3. 사회적 지지 수혜, 4. 사회적 지지 제공, 5. 정서적 가치, 6. 도구적·사회적 가치, 7. 부담적 가치 8. 출산의향
 2. * p<.05, ** p<.01, *** p<.001

〈표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AIC	BIC	SABIC	LMR	BLRT	Entropy
1-계층 모형	4858.64	4892.36	4866.97			
2-계층 모형	4454.62	4509.41	4468.15	<.01	<.001	0.76
3-계층 모형	4211.40	4287.26	4230.13	<.001	<.001	0.80
4-계층 모형	4154.10	4251.04	4178.03	<.01	<.001	0.81
5-계층 모형	4121.12	4239.12	4150.25	>.05	<.001	0.82
6-계층 모형	4088.52	4227.60	4122.86	>.05	<.001	0.79

2. 잠재집단의 분류

연구 참여자들이 출산의지 전체 변인의 하위변인인 출산의향, 정서적 가치, 도구적·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와 관련하여 몇 개의 프로파일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계층 모형에서부터 집단 수를 하나씩 늘려 가며 정보준거지수, 우도비 검증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정보준거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1-계층 모형에서부터 6-계층 모형에 이르기까지 AIC, BIC, SABIC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비 검증 통계량을 볼 때 BLRT는 1-계층 모형에서 6-계층 모형에 이

르기까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LMR 지수는 2-계층 모형에서 4-계층 모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5-계층 모형과 6-계층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 > .05$). Entropy 지수는 2-계층 모형에서부터 5-계층 모형에 이르기까지 증가하고 있었으며, 5-계층 모형일 때 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최종 모형은 4-계층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4-계층 모형의 잠재집단의 분류율과 응답자 수, 응답자별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 할당 확률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의 대각선의 값이 클수록 각 사례가 분류된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Pastor et al., 2007), 집단 1에 속한 응답자가 집단 1에 분류될 확률의 평균은 95.2%, 집단 2의 할당 확률 평균은 88.1%, 집단 3의 경우에는 86.4%, 집단 4의 경우엔 90.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가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86.4%~95.2%로 나타나 높은 할당 확률을 나타내었으며,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3.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및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적으로 선정된 4-계층 모형의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잠재집단별 출산의지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 1은 전체 7.4%(37명)로 출산의지의 모든 하위요인이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가치와 자녀가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도움도 낮게 지각하고, 자녀에 대한 부담은 크게 지각하여 출산에 대한 의지 자체도 낮은 집단으로 '무관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 48.8%(244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며 출산의지의 모든 하위요인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가치, 자녀에게 바라는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기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출산의지 수준 등이 모두 평균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출산의지는 높고, 자녀에 대한 부담은 낮게 인식하여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 21.8%(109명)로 출산의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가치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도구적·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 출산의지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관심형 집단에 비해선 자녀를 통해 얻는 정서적인 만족감, 사회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 출산의지가 다소 높으나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에 비해서는 낮기에 '소극적 출산고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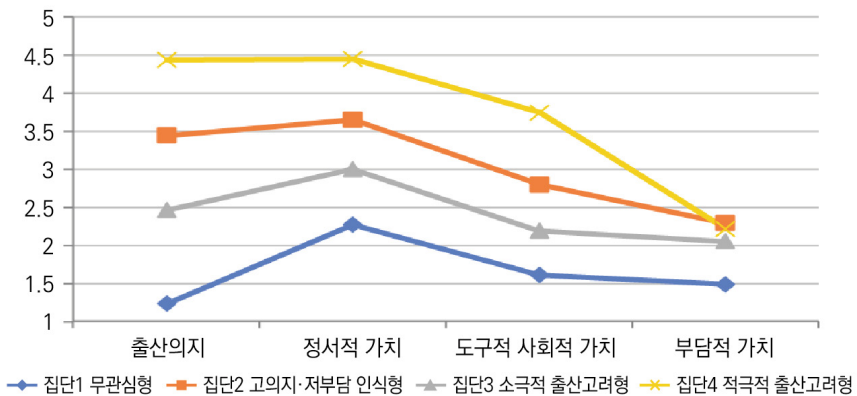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전체 22.0%(110명)로 부담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다른 집단과 비슷하게 지각하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가치도 높게 지각하여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할당 확률 평균

집단	비율	잠재프로파일 집단			
		1	2	3	4
1	7.4%(37명)	0.952	0.000	0.048	0.000
2	48.8%(244명)	0.000	0.881	0.070	0.049
3	21.8%(109명)	0.035	0.102	0.864	0.000
4	22.0%(110명)	0.000	0.093	0.000	0.907

〈표 4〉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출산의지 하위요인의 평균

변인	출산의지 잠재집단			
	1. 무관심형 7.5%(37명)	2. 고의지· 저부담 인식형 48.7%(244명)	3. 소극적 출산고려형 21.9%(109명)	4. 적극적 출산고려형 22.1%(110명)
	M(S.E.)	M(S.E.)	M(S.E.)	M(S.E.)
출산의지	1.23(.08)	3.44(.08)	2.46(.12)	4.43(.08)
정서적 가치	2.27(.14)	3.65(.07)	3.00(.10)	4.44(.06)
도구적·사회적 가치	1.61(.09)	2.80(.07)	2.19(.09)	3.74(.09)
부담적 가치	1.49(.08)	2.29(.05)	2.05(.12)	2.21(.07)



〈그림 1〉 출산의지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그래프

다음으로 각 잠재 집단에 분류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를 성별, 교육 수준, 경제력(개인적 차원), 성장기 가족 형태(가족적 차원), 거주 지역(지역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인원과 비율을 확인한 후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인 성별별로 집단에 속한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무관심형 집단 2.8%,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 52.4%,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12.0%,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32.8%로 분류되었으며 여성은 무관심형 집단 11.2%,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 48.8%,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29.6%,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10.4%로 분류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성은 무관심형 집단에서 남성보다 4배,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서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대학원 석사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는 비율(43.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에 따른 집단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경제력이 상 수준인 개인은 그 수가 적으나 모두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였고, 경제력이 하, 중하 수준인 개인은 중, 중상 수준의 개인에 비해 무관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력이 하 수준인 개인들은 다른 수준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적 차원인 성장기 가족형태의 경우, 대가족의 비율이 적극적 출산 고려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가족 형태에서는 각 잠재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대가족에서는 무관심형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이 4.5%로 7~8%에 해당하는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낮았으며 적극적 출산고려형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이 31.3%로 나타나 응답자 수가 적은 조손가족을 제외하고 20%에 근접하는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따른 집단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이 절반에 가까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소극적 출산고려형과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무관심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집단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모든 지역에서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집단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집단 1 무관심 집단	집단 2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	집단 3 소극적 출산 고려 집단	집단 4 적극적 출산 고려 집단	계
		7.5%(37명)	48.7%(244명)	21.9%(109명)	22.1%(110명)	
성별	남	7명(2.8%)	131명(52.4%)	30명(12.0%)	82명(32.8%)	250명
	여	28명(11.2%)	122명(48.8%)	74명(29.6%)	26명(10.4%)	250명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명(6.6%)	34명(44.7%)	23명(30.3%)	14명(18.4%)	76명
	대졸	28명(7.2%)	203명(52.5%)	78명(20.2%)	78명(20.2%)	387명
	석사 이상	2명(5.4%)	16명(43.2%)	3명(8.1%)	16명(43.2%)	37명
경제력	하	5명(9.4%)	21명(39.6%)	16명(30.2%)	11명(20.8%)	53명
	중하	12명(9.0%)	74명(55.2%)	28명(20.9%)	20명(14.9%)	134명
	중	15명(6.0%)	132명(53.2%)	48명(19.4%)	53명(21.4%)	248명
	중상	3명(5.0%)	26명(43.3%)	48명(19.4%)	53명(21.4%)	60명
	상	0%	0%	0%	5명(100.0%)	5명
가족 형태	핵가족	28명(7.3%)	199명(52.2%)	78명(20.5%)	76명(19.9%)	381명
	대가족	3명(4.5%)	29명(43.3%)	14명(20.9%)	21명(31.3%)	67명
	한부모	4명(8.9%)	21명(46.7%)	11명(24.4%)	9명(20.0%)	45명
	조손	0명	4명(57.1%)	1명(14.3%)	2명(28.6%)	7명
지역	특별시	12명(8.2%)	72명(49.0%)	26명(17.7%)	37명(25.2%)	147명
	광역시	10명(7.1%)	77명(54.6%)	26명(18.4%)	28명(19.9%)	141명
	도(시)	13명(7.0%)	92명(49.2%)	48명(25.7%)	34명(18.2%)	187명
	도(군)	0명	8명(44.4%)	3명(16.7%)	7명(38.9%)	18명
	특별자치도	0명	4명(57.1%)	1명(14.3%)	2명(28.6%)	7명

4.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수혜, 제공)의 차이

출산의지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수혜와 사회적 지지 제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MANOVA,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수혜 및 제공의 수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MANOVA 결과, 자존감($F=15.00, p<.01$), 가족건강성($F=94.56, p<.001$), 사회적 지지 수혜($F=69.68, p<.001$), 사회적 지지 제공($F=85.14, p<.001$) 모두에서 잠재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자존감의 총점을 볼 때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다른 세 집단인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무관

심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건강성의 총점에서는 적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무관심형 집단의 순서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혜의 총점을 보았을 때 적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집단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 제공의 총점을 볼 때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이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무관심형 집단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나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과 무관심형 집단과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차이검증

	집단 1 무관심 집단	집단 2 고의지·저 부담 인식형 집단	집단 3 소극적 출산 고려 집단	집단 4 적극적 출산 고려 집단	F	집단 간 순서
	M(S.E.)	M(S.E.)	M(S.E.)	M(S.E.)		
자존감	3.05(.17)	3.20(.05)	3.06(.09)	3.45(.07)	15.00**	1,2,3<4
가족건강성	2.71(.16)	3.51(.05)	3.25(.08)	4.07(.08)	94.56***	1<3<2<4
사회적 지지 수혜	3.07(0.19)	3.62(.05)	3.42(.10)	4.16(.07)	69.68***	1<2<4, 3<4
사회적 지지 제공	3.33(.16)	3.57(.04)	3.37(.07)	4.11(.06)	85.14***	3<2<4, 1<4

주: ** p<.01, *** p<.001

V. 논의

본 연구는 국내 30대의 출산의향과 자녀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출산의지의 특성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수혜와 제공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30대는 출산의지에 따라 4개 유형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개

유형은 무관심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출산의지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살펴볼 때 집단 1은 ‘무관심형 집단’으로 전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인 7.5%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정서적 가치, 도구적·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 출산의지의 모든 변인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으로 출산을 통해 자녀가 생김으로써 기대되는 기쁨이나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행복감, 삶의 의미 등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낮게 지각하고, 부모로서 자식이 해줄 부양, 사회적인 인정이나 지위 획득, 자손의 번성 등에 대한 기대도 낮은 집단이다. 또한 다른 세 집단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부담적 가치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부담을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은 데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인 만족감과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기대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집단 2는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8.7%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부담적 가치를 제외한 출산의지의 모든 하위변인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절반을 넘는 개인이 해당 집단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한국 30대의 출산의지와 관련된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적 가치와 출산의지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경험하게 될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크게 지각하고 이것이 출산의지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크게 지각하는 개인은 출산의지가 높다는 선행 연구(정영혜·김현주·정소희, 2013; 최지훈·안선희, 2017)와 일치하며, 특히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연령, 시대적 배경에 상관없이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는(심도담, 2017)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현재의 한국에서도 출산의지에 관해 연구함에 있어 자녀의 정서적 가치 변인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 3은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으로 전체 중 21.9%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정서적 가치는 평균 수준이나 다른 하위변인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출산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높으나 그 외의 사람들에 비해선 낮게 지각하여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즉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하나 그 수준이 적극적이거나 평균 사람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으로 자녀가 생김으로써 얻을 여러 가치나 이득에 대해서도 낮게 지각하며 출산에 대해 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쪽에 가까운 개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 4는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으로 전체 중 22.1%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부담적 가치를 제외한 출산의지의 하위요인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즉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고,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녀를 얻었을 때 느낄 정서적 만족감,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기대 수준이 높으며 자녀가 생김으로써 경험할 어려움에 대한 부담 수준도 크게 지각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출산을 고려하는 개인들로 볼 수 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확인된 출산의지의 잠재집단 간 자존감,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수혜와 제공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출산의지 잠재집단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자존감은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다른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무관심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고려하는 개인이 그와 비교했을 때 덜 적극적인 개인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출산력과의 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자존감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Hutteman et al., 2013; Mededović, 2025).

다음으로 가족건강성은 적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무관심형 집단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출산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서 자기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느끼는가는 이후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 후 바람직하고 건전한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손경희·김남희·이은숙, 2019)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향의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수혜는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적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집단 순서로 사회적 지지 수혜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제공도 수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무관심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극적 출산고려형,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적극적 출산고려형이 무관심형 집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수혜와 제공 역시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출산의지가 높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제공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양방향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하여 출산의지와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지며, 기존에는 주로 사회적 지지를 받기만 하는 수혜의 관점에서 출산의지와 관계에 대해 이해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제공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와 출산의지와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해 더 풍부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즉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제공받기도, 제공하기도 하며 질 높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출산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함으로써 출산의지를 높인다(황정은, 한송이, 2017)는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 변인 중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 자체로도 높은 출산의지와 연관이 있고,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출산의지로 분류된 잠재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지역, 교육수준, 가족형태, 경제력에 따른 집단에 속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집단에 속하는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박길진, 2008; 이세영·홍달아기, 2014). 이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된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조건을 낮게 인식하며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귀결되는 구조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조선미, 2025). 지역에 따른 각 잠재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집단의 비율과 크게 상이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에 속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원 석사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는 개인들은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고의지·저부담 인식형 집단에 속하는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그 이하 교육수준의 집단보다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소이, 2019)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에서 무관심형,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가족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가족에서 자란 개인들이 다른 가족 형태에서 자란 개인들보다 출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출산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가족을 지지하는 환경이 출산의도보다 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살며 부모나 시부모 등의

가족들이 육아에 대해 지원할수록 후속 출산가능성이 높아짐을(Yoon, 2017) 고려할 때 대가족에서 자라온 개인은 실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출산 이후 가족들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짐으로써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에 따라 집단에 속할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력이 상 수준인 경우엔 응답자의 수가 적긴 하나 모두 적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였고, 경제력이 하, 중하 수준에서는 중, 중상 수준에 비해 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추가로 경제력이 하 수준인 경우에 다른 수준에 비해 소극적 출산고려형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30.2%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의 수준이 높을 때 적극적으로 출산을 고려하고 낮은 수준일 때 출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더 소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후속 출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출산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한 연구와(Lim, 2021)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에 진행되지 않은 한국 성인들 중에서 결혼과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의지에 따른 잠재집단의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출산의지는 심리적, 사회·정책적, 경제적 변인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변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개인이 보이는 출산의지와 자녀에 대한 가치의 반응패턴으로 구분 짓고,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고려한 최적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Chen, Zhang & Wang, 2019). 즉 잠재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단순히 출산의지 자체로만 구분하기보다 출산의지에 더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도구·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출산의지라는 복잡한 변인의 특성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잠재집단을 산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30대 성인 중 어떠한 집단에 속한 개인이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지, 즉 저출산의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단순히 30대 성인에게 일관된 개입 방향보다 잠재집단 별로 상이한 심리·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실에 내방한 개인 중 출산에 대해 무관심한 집단에 속한 이들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입할 때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eng et al., 2025).

구체적으로 적극적 출산고려형은 타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기제가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출산의지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웰빙 및 자아 존중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 상담을 넘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확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무관심형이나 소극적 고려형 집단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건강한 관계 모델이 미래의 출산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가족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 상담 및 예비 부모 교육'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정착시켜야 한다.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잠재적 부모인 30대에게 긍정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진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결속을 높이는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더해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의지 잠재집단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출산의지에 관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된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출산에 필요한 조건을 낮게 인식하고 젠더화된 돌봄 책임과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김지성, 2025; 조선미, 2025) 출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출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각하는 여성 집단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이를 위하여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부담, 경력 단절 예방 등의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출산의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수혜'뿐만 아니라 '제공' 역시 출산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호 호혜적인 지지망을 갖춘 개인이 출산에 더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지자체 중심의 '육아 공동체 및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수혜를 넘어,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실천적 도움을

주고받는 ‘자조 모임(Self-help group)’과 ‘품앗이 육아’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양방향적 지지 구조는 육아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여부, 자녀의 유무, 남편의 양육 참여, 부모 스트레스, 가사분담비율 등의 변인간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경제력은 연구참여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력’을 측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실제 소득 수준, 자산 규모와 같은 객관적 경제지표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혼인상태 및 자녀 유무를 함께 탐색하지 못하였는데 결혼은 안정적인 정서적, 경제적 기반이 됨으로써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이세영, 2014) 실제 자녀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달라(강유진, 2020) 출산의지와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남편의 양육 참여, 부모 스트레스, 가사분담비율 등도 출산의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Kim & Yi, 2024)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30대 성인 남녀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통계청(2025) 자료에 의하면 30대 이외 연령층의 출산 비중이 약 22.6%에 달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20대나 40대 등 타 연령군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령대별로 상이한 발달 과업과 생애주기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인구통계학적 범주의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소속 확률을 추론하는 데 있어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집단의 과소 표집은 통계적 유의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균형성을 고려한 표집 설계를 통해 결과의 재현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거나 패널에 가입되지 않은 인구가 배제되는 등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성향에 따른 응답 편향 등 응답 오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조사나 다각화된 데이터 수집 경로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 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3-26.
- 김광용(2022).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지방재정*, 제2022권 제2호, 104-111.
- 김경수·허가형·유근식·김상미(2021).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미령(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제2권 제1호, 99-121.
- 김소이(2019). 기혼자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관계 특성 및 출산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순은(2017).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지방행정*. 제66권 제759호, 26-29.
- 김은경·박신애(2019). 후속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및 지역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7호, 443-454.
- 김은정(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 1-8.
- 김은진·정혜정·정유진(2022). 대학생이 지각한 자녀가치와 결혼동기 및 부모와의 관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제40권 제1호, 27-39.
- 김정훈(2017). 중장기 재정전망 및 국민부담. *재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1-53.
- 도남희(2019). 동아시아(한·중·일)의 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육아정책포럼*. 제59권, 38-45.
- 라송주(2007).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와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박관태·전희정(2020).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출산율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4호, 67-100.
- 박민근·김윤희(2024).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분석: 정책조합과 시공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1호, 219-247.

-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와 딸 두 세대 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189-197.
- 박영애(2013).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배경민(200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길진(2008).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손경희·김남희·이은숙(2019). 간호대학생의 가족건강성, 결혼관 및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1호, 719-728.
- 심도담(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과 후속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오은진·김소연(2021).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여성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1호, 163-208.
- 이상준(2023). 한국판 양방향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특별자치도.
- 이상준·이영순(2025). 한국판 성인용 양방향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제26권 제1호, 135-155.
- 이세연(2007).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세영(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영·홍달아기(2014).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2호, 3-28.
- 이보라·이정자(2019). 여군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2권 제2호, 29-60.
- 이소영(2008).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15-30.
- 이휘정·김경민(2022). 도시환경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8권 제4호, 459-473.
- 이은경(2005). REBT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이인숙(2022).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78-86.

- 이영애(1973).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관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원호택(1995).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제4권 제2호, 15-29.
- 이현옥(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99-132.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4호.
-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FSS-Ⅱ) 개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1권 제4호, 113-129.
- 엄연용(2024). 머신러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령집단별 후속출산의도 예측 모형 비교. 육아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99-122.
- 임병인·서혜림(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123-140.
- 임효진·박휴용·장경은·이지은(2015).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 출산의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297-318.
- 정영혜·김현주·정소희(2013).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모의 자녀관과 부부특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20권 제2호, 185-203.
- 조선미(2025). 출산 인식의 성별 차이와 국제비교: GGS(Generations & Gender Survey)와 한국 예비조사 결과. 젠더리뷰. 78호, 46-59.
- 조해연·유준호(202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 양육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제20권 제1호, 107-122.
- 최지훈·안선희(2017). 청년층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미래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서울.
- 통계청(2024). 합계출산율(총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stat_term_cd=SL4289
- 통계청(2025).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 통계청(2025). 출생통계: 연간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
- 하정희·장유진(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 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제23권 제2호, 427-449.

홍성란(2016).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경상북도.

황정은·한송이(2017).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과 사회적 지지, 가족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1권 제4호, 75-103.

Antonucci, T. C., Fuhrer, R. & Jackson, J. S.(1990). Social support and reciprocity: A cross-ethnic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4), 519-530.

Araban, M., Karimy, M., Armoon, B. & Zamani-Alavijeh, F.(2020). Factors related to childbearing intentions among women: A cross-sectional study in health centers, Saveh, Iran. *Journal of the Egypt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95, 1-8.

Asparouhov, T. & Muthén, B.(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Bronfenbrenner, U.(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2), 37-43.

Chen, S. M., Zhang, Y. & Wang, Y. B.(201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lative fertility costs and fertility benefits and their effects on fertility desire for a second child in China: A latent profile analysis. *Reproductive Health*, 16, 1-9.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Fiori, F., Rinesi, F., Pinnelli, A. & Prati, S.(2013). Economic insecurity and the fertility intentions of Italian women with one chil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2(3), 373-413.

Hashemzadeh, M., Shariati, M., Mohammad Nazari, A. & Keramat, A.(2021). Childbearing inten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

- systematic review. *Nursing Open*, 8(5), 2354-2368.
- Holt-Lunstad, J.(2022). Social connection as a public health issue: The evidence and a systemic framework for prioritizing the “social” i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43(1), 193-213.
- Hutteman, R., Bleidorn, W., Penke, L. & Denissen, J. J.(2013). It takes two: A longitudinal dyadic study on predictors of fertility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81(5), 487-498.
- Kim, E. & Yi, J. S.(2024). Determinants of fertility intentions among South Korean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ehavioral Sciences*, 14(10), 939.
- Kuhnt, A. K. & Trappe, H.(2016). Channels of social influence on the realization of short-term fertility intentions in Germany.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7, 16-29.
- Lim, S.(2021).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fertility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44, 941-966. <https://doi.org/10.4054/DemRes.2021.44.32>
- Maton, K. I.(1987). Pattern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material support within a religious setting: The bidirectional support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185-207. <https://doi.org/10.1007/BF00922716>
- Mededović, J.(2025). Self-esteem, but not narcissism, positively predicts fertility across the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6, Article 113029. <https://doi.org/10.1016/j.paid.2025.113029>
- OECD(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https://stat.link/vxdln>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https://doi.org/10.1016/j.cedpsych.2006.10.003>
- Peng, H., Chou, X., Zhang, Z. & Qiu, H.(2025). The impact of family functioning 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tudy based on latent profile analysis. *BMC Public Health*, 25(1), Article 2955. <https://doi.org/10.1186/s12889-025-19555-0>

- Rashidi, F., Ghahremani, F., Mahmoodi, Z. & Doulabi, M. A.(2025). The role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woman's intention to pregnancy: A model with the mediation of social support. *BMC Public Health*, 25(1), Article 1062. <https://doi.org/10.1186/s12889-025-18462-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kespeare-Finch, J. & Obst, P. L.(2011). The development of the 2-way social support scale: A measure of giving and receiving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5), 483-490. <https://doi.org/10.1080/00223891.2011.594124>
- Stinnett, N.(1981). Family strengths. In E. J. Fredericksen, N. Stinnett & Associates (Eds.), *Vital relations: Explorations in family patterns* (pp. 27-43).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pino, E., Kameg, K. M., Cline, T. W., Terhorst, L. & Mitchell, A. M.(2016).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ymptom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survivors bereaved by suicid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0(5), 602-606. <https://doi.org/10.1016/j.apnu.2016.06.003>
- Vermunt, J. K.(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https://doi.org/10.1093/pan/mpq025>
- Yoon, S. Y.(2017). The influence of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families on women's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6, 227-254. <https://doi.org/10.4054/DemRes.2017.36.7>

Abstract

Latent Profile Analysis of Childbearing Intention among Adults in Their 30s: Differences in Self-Esteem,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Nan Mee, Yang* · Dong Ju, Kwon**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sub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intentions among individuals in their 30s and to explore differentiat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ch group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Latent profile analysis(LPA)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b-factors of childbirth intention and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esteem, family health, and social support were examined across these groups. Specificall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500 adults in their 30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LPA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latent classes: Indifferent, High Intention, Low Burden, Passive Consideration(PC), and Active Consideration(AC). Second, an analysi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y group showed that the AC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elf-esteem, family health, and social support(received and provided)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In particular, family health was highest in the AC group, followed by the PC, High Intention, Low Burden, and Indifferent groups. Third,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tions were observed across classes regarding gender, region, education,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By providing data for tailored birth policies and discussing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offers a 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the low birth rate.

Keywords : low birth rate, childbearing intention, self-esteem,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Master's stu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